한국문학논총 제55집(2010. 8) 193~230쪽

춘향전의 인물과 독자의 욕망 구조

- 완판 <열녀춘향수절가>를 중심으로

장 순 희*

차 례

Ⅰ. 서 론
Ⅱ. 춘향전 인물의 욕망
Ⅲ. 춘향전 독자의 욕망
Ⅳ. 결 론

국문초록

춘향전 텍스트는 희곡이나 영화로 변용되어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판소리 춘향가와 고전소설 춘향전류에 나타난 춘향의 욕망은 대중의 보편적인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 그 보편적인 것마저도 실현될 수 없었던 사회에서 춘향의 욕망은 여염집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결국 춘향은 자신의 처절한 저항과 연인의 구원으로 욕망을 실현한다. 춘향전 독자들은 춘향전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낭만적 결연에서 오는 판타지를, 한편으로는 적대자를 물리치는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런 춘향의 욕망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욕망이지만, 이것이 당대 지배담론의 억압을 정절로 포장한 면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소설이

* 부산진여자중학교 교사,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조선후기에 춘향전은 당대 향유층에게 상하층의 담론을 표출함으로써 이후 대중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춘향전 인물의 욕망은 결국 춘향전 독자의 욕망의 반영이며, 현대 대중의 욕망과 통한다.

조선후기 고소설 방각본 출판은 소설사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판소리처럼 '듣고 보는' 텍스트가 아니라 '읽는 텍스트'로서 매체를 변화시켜서 전문독자층을 출현시킨 것이다. 또한 춘향의 욕망은 춘향전 독자의 보편적 욕망이므로 독자들은 작품을 읽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춘향의 욕망과 춘향전 독자의 욕망은 대중문화 출현의 토대가 되었다. 춘향전의 욕망과 춘향전 독자의 욕망구조를 지라르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작업은 고소설을 뒷방 창고에 갇힌 텍스트로 인정하는 현대인에게 춘향전을 자세히 읽게 하여 현대 대중문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춘향, 고소설, 고소설교육, 욕망, 독자

Ⅰ. 서 론

춘향전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사랑인데 연인인 이몽룡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적대자를 물리쳐 주고 미천한 신분을 정렬부인까지 되게 하므로 판타지적 요소가 있다. 춘향[1]의 욕망은 가장 보편적인 '사랑'을 다루면서도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므로 현대에까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춘향전이 현대에까지 다른 장르로 변용되면서도 고소설로

1) 춘향은 판소리 춘향가의 춘향과 기본 텍스트인 소설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을 주로 하고, 춘향 및 춘향전과 간텍스트성을 이루는 작품의 춘향을 다 포괄하여 쓰고자 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 꾸준히 대중적 지지를 받는 원인은 춘향의 욕망이 현대인에게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가 만연해 있는 사회이다. 일일 연속극 전에 하는 유명 여배우의 화장품 광고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패션과 가구 등은 주부들의 소비 현상을 부추김으로써 욕망의 삼각형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 내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드라마 시청자들 역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대중문화의 주류를 형성하는 텔레비전 드라마[2] 주인공의 욕망과 시청자의 욕망은 고소설 춘향의 욕망과 춘향전 독자의 욕망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춘향전 인물이 등장하는 숙종시대는 상업 경제의 발달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우리나라에서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질서가 서서히 무너지는 시작한다. 춘향전류는 빨라야 18세기 이후에 출판되며 <완판열녀춘향수절가>는 19세기 이후에 간행된 방각본이다. 따라서 근대로 접어 들면서 시장 경제체제 사회에서 방각본의 상업적 유통은 독자들에게 작품을 읽으며 욕망마저 자연발생적인 아니라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가짜 욕망을 소유하게 되는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춘향의 욕망은 소설의 주인공의 욕망이 아니라 당대 독자의 욕망이며, 그 사회의 구조와 동질성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에서 지라르의 욕망이론으로 춘향의 욕망과 춘향전 독자의 욕망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무리 근대로의 이행기라 해도 아직까지 신분적 질서가 유지되던 조선 후기에 미천한 기생이 고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소설구조는 분명 당대 소설을 향유하는 독자들에게 기존의 소설과는 다른 시사점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소설의 사회적 유통은 당대 사회의 반영은 물론이고, 독자의 욕망과 관련되어 새로운 유형의 소설을

2)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제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23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생산했을 것이다. 이런 구조적 패러다임 속에서 애정소설이라는 보편성 속에 내재된 춘향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주 텍스트는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3]이며 때에 따라서 간텍스트성을 이루고 있는 작품군도 함께 언급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의 텍스트 내적 인물의 욕망[4]을 분석한 뒤 춘향전이 유통되는 당대 독자의 욕망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춘향전이 고소설로서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춘향전 인물의 욕망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 부분은 서사의 시대적 상황을 제시한 내용이며, 중간 부분은 월매가 기자정성을 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왕이 성춘향에게 정렬부인을 봉하기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은 이몽룡이 퇴사한 이후의 내용이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이야기의 외부에 해당한다.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권의 도입부 조선조 숙종대왕 즉위 초는 요순시절로 묘사되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다.[5]

슉종딕왕 직위초의 셩덕이 너부시사 셩자 셩손은 계계승승ᄒᆞ사 금고

3) 김동욱 편, 完西溪書舖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영인 고소설판각본전집』 3,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315-356쪽.
4) 욕망은 작품 내적으로는 소설의 인물이 가진 동기이며, 독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욕망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5) 김병권,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주역적 원리 연구」, 『한국문학논총』 47, 한국문학회, 2007, 1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옥족은 **요순 시졀**이요, 으관 문물은 우탕의 버금이라. 좌우보필은 쥬셕지신이요, 용양호위난 간셩지장이라. 조정의 흐르난 덕화 힝곡의 폐엿시니 사히 구든 기운이 원근의 어려 잇다. 츙신은 만조ᄒᆞ고 회자 열여 가가지라, 미지미지라. **우슌 풍조ᄒᆞ니 함포고복** 빅셩달은 쳐쳐의 **격량가**라(상, 제1장 전면)[6]

스토리 외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작가의 의도이면서 곧 일반 백성의 소망이 함축된 부분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요순시절', '우탕', '우슌 풍조ᄒᆞ니 함포고복', '격량가' 등은 모두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은유이다.

① 어여로 상사뒤요, 철리건곤 **틱평시의 도덕 노푼 우리 셩군 강구연월 동요듯던 요임군 셩덕**이라 어여로 상사뒤요 …… (중략) …… 여여라 상사뒤요 남젼북답 긔경ᄒᆞ야 **함포고복** ᄒᆞ여보ᄉᆡ. 어널널 상사뒤요(하, 제70장 후면)
② 등장가자 등장가자. **하날임 젼으 등장** 가량이면 무슨 말을 하실난지. 늘근이는 죽지말고 졀문 사람 늑지 말게. **하난임젼의 등장** 가ᄉᆡ(하, 제71장 전면~후면)

상권 발단 부분의 이한림의 재임시절까지는 태평하나 하권의 변학도 이후는 태평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춘향전 소설 속에서 임금과 이몽룡은 평화시의 구현자이고 변학도는 백성을 힘들게 하므로 징계받아야 하는 양반관료이다. 그러므로 소설 작품 곳곳에 백성들의 요순시절에 대한 희구가 반영되어 있다. ①은 농부들의 노래이고, ②는 노인들의 노래이다. ①에서 조선후기 대부분의 평민들은 농부이므로 여기에 나오는 '틱평시의 도덕 노푼 우리 셩군 강구연월 동요듯던 요임군 셩덕', '함포고복'은 곧 백성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②의 등장은 관청에 연명으로 호소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현실의 힘겨운 삶을 누군가에게 호소하

6) 출처 표시는 원본에 기준했으며, 띄어쓰기・문장부호・진하게 하기는 필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이며 이하의 인용문에서도 동일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 싶어서 이를 정반대로 노래에서는 이상적 사회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발화는 백성들의 원망이 드러난 발화이다. 일부종사로 수절하려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하고 매로 응징하는 변학도에 대한 원망과 이를 구원해 주지 않는 이몽룡에 대한 미움이 함께 드러난다. 여기서 이몽룡과 변학도는 모두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① 네치나셜 싹 부치니 **사ᄐᆡ부 사또임은 사면 공사 살피잔코 우력공ᄉᆞ 심을 쓰니 십팔방 남원 빅셩 원망하믈 모르시요.** 사지를 갈은ᄃᆡ도 사ᄉᆡᆼ 동거 우리 ᄂᆞᆼ군 사힝간의 못잇것소.(하, 제57장 후면~58장 전면)

② 야달치 낫 싹 부친이 팔자 조흔 춘향 몸이 팔도 방빅 수령 중의 졔일 명관 맛나구나. **팔도 방빅 수령임네 치민하려 내려왓졔 악형하려 내려왓소.**(하, 제58장 전면~후면)

③ 잇ᄯᅴ 남원부 할양이며 남여노소 업시 묘와 구경할졔 좌우의 할양더리 **모지구나 모지구나 우리 골 원임이 모지구나.** 져런 형별리 웨 잇시며 져런 ᄆᆡ질리 웨 잇슬가. 집장사령놈 눈익켜 두워라. 삼문 밧 나오면 급살을 주리라. 보고 듯난 사람이야 뉘가 안이 낙누하랴.(하, 제57장 후면)

④ **남여노소 업시 셔로 낙누하며 도라셜졔** 사ᄯᅳᆫ들 조흘이가 잇스랴. 네 이연 관정발악하고 마지니 조흔계 무어신야. 일후으 ᄯᅩ 그런 거욕 관장할가(하, 제59장 후면)

⑤ 지금 춘향이를 수청아니든다 하고 형장 맛고 갓쳐쓰니 창가의 그런 열여 셰상의 드문지라. 옥결갓튼 춘향몸의 자ᄂᆡ갓턴 동낭치가 누셜을 지치다는 비러먹도 못ᄒᆞ고 굴머 뒤여지리. **울나간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그놈의 자식은 일거후 무소식하니 인사가 그러코는 벼살은 컨이와 ᄂᆡ좃도 못하졔** 어 그계 무슨 말인고. 웨엇지 됨나 되기야 엇지 되야마는 남의 말노 구십을 너머 고약키 하난고 자ᄂᆡ가 철모로난 말을 하ᄆᆡ 그러체(하, 제72장 전면~후면)

⑥ 녹수진경 너룬 길은 왕ᄂᆡ하든 옛길이요 오작괴 다리밋ᄐᆡ 쌀ᄂᆡ하는 여인드른 게집아히 셕겨 안져 야야 웨야 ᄋᆡ고ᄋᆡ고 불상터라. 춘향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이가 불상터라 모지더라 모지더라 우리골 사또가 모지더라. 졀기 놉푼 춘향이을 우력 겁탈하려한들 철셕갓튼 춘향 마음 죽난거슬 세아릴가. 무졍터라 무졍터라. 이도령이 무졍터라(하, 제74장 전면)

위의 ①, ②는 춘향의 발화를 통해 위정자의 역할과 바르지 못한 악형을 비난하고 있다. ③, ④는 춘향에 대한 동정이 변학도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고 있다.

⑤, ⑥은 춘향을 구원해 주지 않는 이도령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평민들은 요순시절이 와서 평민들은 누군가 부정한 관리를 징계하고 자신들의 등장을 들어줄 義士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백성의 욕망은 결국 작품 밖의 사회상을 작가가 솜씨있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1. 춘향의 욕망

여기서 인물의 욕망이나 동기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동기는 인물이 이루려는 목적이나 희망이다. 동기에는 중심적 동기와 종속적 동기가 있다. 중심적 동기는 작품 전체나 큰 부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이 지니는 계속적인 희망이다.[7] 다음 발화에 나타난 춘향전 텍스트 내적인 응결 장치들을 통해 춘향의 욕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① 춘향이 **일편단심 일부종사**하려 하고 글 한 슈를 지여 칙상 우의 붓쳐스되, ᄃᆡ운 춘풍 쥭이요, 분향 야독셔라, 기특하다. 이 글 쓰슨 목난의 졀이로다.(상, 제22장 상면)
> ② **열여 불경이부졀**은 옛글으 일너슨이(상, 제13장 전면)
> ③ 춘향이 **일편단심 일부종사**하려 하고(상, 제22장 전면)
> ④ ᄂᆡ 쌀 심곡 ᄂᆡ가 알제. **일부종사** 하려 하고(상, 제23장 전면~후

7) 이대규, 『국어교육론』, 교육과학사, 2001, 54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면)
⑤ **열불경이부졀**을 본밧고자 하옵난듸(하, 제54장 후면)
⑥ 춘향이 포악하되 유부 겁탈하난 거슨 죄 안이고 무어시오.(하, 제55장 후면)
⑦ **일편단심 구든 마음 일부종사** 쓰시오니(하, 제57장 전면)
⑧ 춘향이 기가 믹켜 ᄂᆡ례오난 관장마닥 ᄀᆡ기이 명관이로고나. 수의사또 듯조시요. **칭암졀벽 놉푼 바우 바람분들 문어지며 청송녹죽 푸린 남기 눈이온들 벤하릿가.** 그른 분부 마옵시고 어셔 밥비 쥭여주오.ᄒᆞ며(하, 제83장 후면)

①은 성춘향 자신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말이고, ②, ③은 서술자가 성춘향의 의지를 표현한 내용이며, ④는 월매가 딸인 춘향의 욕망을 이몽룡에게 전하는 말이다. ⑤, ⑥, ⑦은 성춘향이 일부종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변학도가 방해하므로 변학도와의 갈등이 강하게 표출된 발화이다. ⑧은 일부종사하려는 성춘향을 신관 사또도 방해하므로 변학도와 동급으로 지배계층을 모두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①~⑧을 통해 성춘향의 중심동기는 일부종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일부종사는 양반 또는 여염집의 여자에게 주어지며, 춘향과 같은 기생 딸의 신분에게는 일부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사회의 통념이었다. 춘향은 기생의 딸이므로 대비속신했다 하더라도 일부종사를 이루기 힘들다. 이것은 작품 속에 춘향의 미색을 익히 듣고 양반 오입쟁이들이나 한량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춘향은 평범한 여염집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일부종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므로 가짜 욕망인 여염집 여인이 되고 싶어한다.

여기서 춘향의 일부종사의 대상은 반드시 신분상승을 위해 양반 남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한 남자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춘향의 아버지가 성참판이라 반쪽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기생처럼 취급하므로 더욱더 춘향이가 절실하게 여염집 여인이 되고 싶어한다. 춘향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생의 딸이지만 월매가 여염집 규수처럼 양육하였고 춘향 자신도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성춘향의 욕망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일부 종사할 대상, 자신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있다. 그러므로 춘향은 일부종사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기생 취급을 하는 고을 수령 변학도에게 항거하면서 여염집 여인이 되고 싶어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의 주인공 춘향은 '문제적 인물이며 획일주의와 인습의 세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모색한다'[8]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춘향의 욕망의 간접적 대상은 여염집 여인이다.

다음 발화는 성춘향의 여염집 여인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발화이다.

> ① ᄂᆡ가 지금 시사가 안이여든 **여렴 사람**을(상, 제10장 후면~제 11장 전면)
> ② ᄂᆡ가 올나가드ᄅᆡ도 도련임 큰ᄃᆡ으로 가셔 살 수 업슬 거시니 큰ᄃᆡ 각가이 조구만한 집 방이나 두엇되면 족하오니 염탐ᄒᆞ여 사 두소셔. 우리 권구 가더ᄅᆡ도 공밥 먹지 아니할 터이니 그렁져렁 지ᄂᆡ다가 도련임 날만 밋고 장ᄀᆡ 안이갈 수 잇소. **부귀 영총 ᄌᆡ상가의 요조숙여 가리여셔 혼졍신셩** 할지라도 아주 잇든 마옵소셔. 도련임 과거하야 벼살 놉파 외방가면 실ᄂᆡ 마마 치힝할졔 마마로 ᄂᆡ셰우면 무삼 마리 되오릿가. 그리 아라 조쳐ᄒᆞ오.(상, 제37장 전면~후면)

위의 발화 ①에서 성춘향은 자신을 여염집 처자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②은 이한림이 동부승지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가야 됨을 알리고 난 뒤 춘향의 발화이다. ②에서 성춘향은 이몽룡이 요조숙녀와 결혼하더라도 춘향이와는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으므로. 자신은 첩으로 살려 한다. 춘향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이몽룡과 정식 혼례제도로 합할 수는 없음을 시인하고 재상가의 요조숙녀와 결혼하더라도 자신

8) 김치수, 「골드만과 발생구조주의」,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242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은 첩으로 잊지는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춘향의 욕망의 중개자는 요조숙녀 즉 여염집 여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발화는 입신출세의 논리로 춘향을 첩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반대하는 어머니 말을 전하며 이몽룡이 이별을 선포하자 춘향의 분노가 표독스럽게 폭발되는 장면이다.

① 그게 일를 말인야. 사정이 그러키로 네 말을 사또게난 못엿쥬고 ᄃᆡ부인젼 엿자오니 ᄭᅮ종이 ᄃᆡ단하시며 양반의 자식이 부형 ᄯᅡ라 하힝의 왓다 **화방작첩** 하야 다려간단 마리 젼졍으도 고이하고 조졍으 드러 벼살도 못 한다던구나. 불가불 이벼리 될 박그 수 업다(상, 제37장 후면)

② 춘향이 이말 듯더니 고닥기 발연변ᄉᆡᆨ이 되며 요 두졀 목으 불그락 푸르락 눈을 간잔조롬하게 쓰고 눈셥이 ᄉᆞᆨ솟하여 지면셔 코가 발심발심ᄒᆞ며 이를 ᄲᅩ도독 ᄲᅩ도독 갈며 온몸을 쑤군 입틀덧하며 ᄆᆡ쒱차난 듯ᄒᆞ고 안ᄯᅥᆫ이 허허 이게 웬 말이요(상, 제37장 후면)

③ 왈칵 ᄲᅱ여 달여 들며 초ᄆᆡ 자락도 와드득 좌루욱 ᄊᆡ져 바리며 머리도 와드득 쥐여 쓰더 싹삭 비벼 도련임 압푸다 던지면셔 무어시 엇져고 엇졔요. 이것도 쓸ᄃᆡ업다 명경체경 산호죽졀을 두르쳐 방문 박그 탕탕 부듯치며 발도 동동 굴너 손벽치고 도라안자 자탄가로 우난 마리 셔방 업난 춘향이가 셰간 사리 무엇하며 단장하여 뉘눈의 괴일고. 몹슬 연으 팔자로다. 이팔 청춘 졀문 거시 이별될 쥴 엇지 알야. 부질 업신 이ᄂᆡ 몸을 허망하신 말삼으로 젼졍신셰 바려구나. 이고 이고 ᄂᆡ 신셰야(상, 제38장 전면)

춘향의 욕망은 양반 자제와의 정식 혼례로 신분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일부종사]이다. 일부종사의 욕망을 양반들은 알아 주지도 않고 양반 오입쟁이들이 만나려 하고 심지어 '화방작첩'처럼 취급하는 것에 분노한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인의 행동이다.

십장가 중 춘향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충효열에 상하 있소'는 춘향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정절관념의 축이며 당대 주요한 가치체계이다. 춘향은 일부종사에는 여염집 여인과 기생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학도는 춘향을 기생의 딸이며 관노로 취급하여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일부종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변학도는 신분 차이에 따라 양반 여인과 기생 사이에 가치체계가 이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춘향의 욕망과 변학도의 욕망이 상충되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자신을 기녀로 보고 춘향의 정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변사또에 맞서 춘향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춘향의 정절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도령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행위'[9]이므로 일부종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상편에서 성춘향은 여염집 처자의 행실 또는 윤리를 본받으려 하고, 이몽룡과 이별하는 장면에서도 '도련임 날만 밋고 장기 안이갈 수 잇소. 부귀 영총 즤상가의 요조숙여 가리여셔 혼졍신셩 할지라도 아주 잇든 마옵소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여염집 여인과 경쟁관계가 없다.[10] 따라서 성춘향의 중심적 동기는 일부종사이고, 종속적 동기는 여염집 여인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춘향전의 주제를 정절이나 烈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부종사와 같은 맥락이다. 작품 내부 발화에서 텍스트 내적인 응결 장치들을 통해 춘향의 욕망을 분석해 본 결과 '일부종사'란 말이 많이 나온다. 욕망은 늘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동기나 목적과 상통한다. 춘향의 욕망인 일부종사를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표현하면 정절과 烈이다. 춘향의 욕망은 궁극적으로는 일부종사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 볼 수

9) 진은진,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정체성 인식 과정 연구」, 『인문학연구』 제6호, 2002, 74쪽.

10) 장순희, 「고전소설 교육을 위한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오행적 원리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5-28쪽에서 발췌함. 본인의 학위논문 연구 당시는 춘향전 텍스트 내적인 인물의 욕망을 연구했으나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적인 인물의 욕망 뿐만 아니라 춘향전이 유통된 당대의 독자까지 폭을 넓혀서 연구하려고 하니 학위 논문의 부분 중 일부를 발췌하여 가져옴을 밝힌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다.

2. 이몽룡의 욕망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성춘향이 이몽룡을 만나는 내용을 서술순차에 따라서 간단하게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몽룡이 광한루에서 성춘향을 만나다.
2) 이몽룡이 성춘향을 찾아가 백년가약을 맺다.
3) 이몽룡이 성춘향을 데려가려 하나 이루지 못한다.
4) 이몽룡이 과거 급제하여 옥에 갇힌 성춘향을 만나다.
5) 이몽룡이 변학도를 봉고파직하고 성춘향을 구해주다.
6) 이몽룡이 성춘향을 서울에 데려 가다.

위의 내용은 성춘향이 이도령을 통해 일부종사의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성춘향이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몽룡은 성춘향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성춘향의 협조자이다. 이몽룡이 성춘향을 왜 도와주는가를 이몽룡의 욕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춘향전의 상편은 춘향과 몽룡의 사랑 부분이고, 하편은 춘향의 시련과 몽룡의 구원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이몽룡은 처음 춘향을 만날 때는 기생의 딸이라 유희적 동기로 접근하나 점점 사랑에 진정성을 얻게 된다. 또한 상편에서는 사랑에 대해 사회적 관습이나 부모의 의견에 따르나 후반부에서는 사랑을 이루려는 주도적 인물로 변한다. 그러나 이몽룡이 성춘향을 도와 욕망 실현을 도와 주려는 중심적 동기는 일관되게 나타난다. 다음 발화는 이몽룡이 성춘향을 돕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 발화이다.

① **육예난 못할망정** 양반으 자식이 **일구이언을 할이 잇나**(상, 제23장 전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② ᄂᆡ 져를 **초취갓치 예길더니** ……(중략)…… **ᄃᆡ장부 먹난 마음 박ᄃᆡ힝실 잇슬손가**(상, 제24장 전면)
③ ᄂᆡ가 이제 올나가셔 **장원급졔 출신하야 너를 다려 갈 거시니**(상, 제44장 전면)
④ **ᄂᆡ의 사랑** 보고지거 주야불망 ……(중략)…… 일구월심 굿게 먹고 **등과외방 바ᄅᆡ더라**(하, 제47장 후면)
⑤ 어사또 남원 공사 닥근후의 **춘향모여와 상단이를 셔울노 치힝할 졔**(하, 제84장 전면)

위의 인용문 가운데 ①, ②, ③은 이몽룡이 성춘향과의 약속을 상기한 내용이며, ④, ⑤는 성춘향과의 약조를 이몽룡이 실천한 내용이다.

③, ④에서 이몽룡의 욕망은 일반적인 조선의 양반들이 과거급제의 목적이 입신양명과 가문의 영달임에 비해서 텍스트 내적으로 사랑의 성취로서 춘향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응집되어 있다. 현대에도 그렇지만 주거지가 한양에 있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중앙관리로 있고 싶어 하지 지방관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몽룡은 춘향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급제하여 지방관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춘향의 욕망실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몽룡인데 작품 내적으로 이몽룡의 중심동기는 성춘향과의 약속을 지켜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종속적 동기는 과거급제하여 지방관리[등과외방]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몽룡의 욕망의 대상은 성춘향과의 약속을 지켜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적 중개인은 과거급제[지방관리]가 되는 것이다. 이몽룡은 지방관리[변학도]와 경쟁하려 하지 않고 탐관오리 변학도의 학정에 대해 봉고파직할 뿐이다. 따라서 갈등관계가 없는 외면적 간접화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변학도의 욕망

<열녀춘향수절가>에서 변학도의 욕망이 드러난 것을 서술순차에 따라서 간단하게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1) 변학도가 (부임 전에) 성춘향의 미색을 듣다.
2) 변학도가 기생점고에서 성춘향을 부르다.
3) 변학도가 성춘향에게 수청을 명하다.
4) 변학도가 (성춘향이 수청을 거절하자) 이몽룡이 장가 갔다고 협박하다.
5) 변학도가 (성춘향이 수청을 거절하자) 성춘향을 하옥하다.
6) 변학도가 생일날 봉고파직되다.

위의 내용은 변학도가 춘향의 수청을 거절당하고 욕망성취에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몽룡이 긍정적 양반임에 비해, 변학도는 성춘향의 욕망 실현을 방해하는 부정적 양반이다. 이 소설의 기본 구도에서 성춘향의 욕망과 변학도의 욕망은 상충되므로 성춘향이 욕망을 실현하면 변학도는 결국 욕망 실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변학도는 성춘향의 욕망 실현의 방해자이기 때문이다. 다음 발화를 통해 변학도의 욕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① 잇ᄃᆡ 수삭만의 신관 사또 낫씨되 자학골 변학도라 하는 양반이오, 난ᄃᆡ 문필도 유여ᄒᆞ고 인물 풍ᄐᆡ 활달ᄒᆞ고 풍유 속의 달통ᄒᆞ야 외입속이 넝넉ᄒᆞ되 한갓 흠이 셩졍이 괴픽한 즁의 샷징을 겸하야 혹시 실덕도 ᄒᆞ고 외결ᄒᆞᄂᆞᆫ 이리간다.(하, 제47장 후면)
② 너 골 괄노가 삼남의 졔일이라졔. 예 부림직하옵ᄂᆡ다. 또 네 골의 츈향이란 게집이 ᄆᆡ우 ᄉᆡ이라지(하, 제47장 후면)
③ 광할누의 보젼하야 ᄀᆡ복하고 ᄀᆡ사의 연명차로 나메 타고 드러갈ᄉᆡ ᄇᆡᆨ셩소시 엄숙하게 보이랴고 눈을 비량 궁글궁글 ᄀᆡ사의 연명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고 동현의 좌기ᄒᆞ고 도임상을 잡순후 ᄒᆡᆼ수문한이요 ᄒᆡᆼ수 군관 집예 밧고 육방 관속 션신 밧고 사또 분부하되 수로 불너 기ᄉᆡᆼ 졈고하라.(하, 제48장 전후면)

④ 사또 ᄃᆡ히하야 자ᄂᆡ 보게 져게 춘향일셰. ᄒᆞ 그년 ᄆᆡ우 에ᄲᅳᆫ듸 잘ᄉᆡᆼ겻소. 사또계옵셔 셔울 계실ᄯᅢ부텀 춘향춘향 ᄒᆞ시더니 한번 귀경할 만하오. 사또 우스며 자ᄂᆡ 즁신하겐나.(하, 제53장 후면)

⑤ 쳔졍하신 연분인지 구관 사또 자졔 이도련임과 ᄇᆡᆨ연기약 ᄆᆡᆺ싸옵고 도련임 가실 ᄯᅢ의 입장후의 다려가마 당부ᄒᆞ고 춘향이도 그리 알고 수졀ᄒᆞ여 잇쌉ᄂᆡ다. 사또 분을 ᄂᆡ여 이놈 무식한 상놈인들 그게 엇더한 양반이라고 엄부시하요 미장젼 도련임이 하방의 작쳡ᄒᆞ야 사자할고. 이놈 다시는 그런 말을 입박그 ᄂᆡ여셔난 죄을 면치 못하리라. 이무ᄂᆡ가 져 한나를 보랴다가 못보고 그져 말야. 잔말말고 불너오라.(하, 제51장 전면~후면)

⑥ 사또 ᄃᆡ히하며 춘향다러 분부하되 오날부텀 몸 단장 졍이ᄒᆞ고 슈쳥으로 거ᄒᆡᆼ하라 사또 분부 황송하나 일부종사 바ᄅᆡ온이 분부 시ᄒᆡᆼ 못하것소. 사또 우어 왈 미ᄌᆡ미ᄌᆡ라. 게집이로다. 네가 진졍 열여로다. 네 졍졀 구든 마음 엇지 그리 에어ᄲᅳᆫ야.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ᄂᆞ 이수ᄌᆡ는 경셩 사ᄃᆡ부의 자졔로셔 명문 귀족 사우가 되야쓰니 일시 사랑으로 잠간 노류장화 하던 너를 일분 ᄉᆡᆼ각하건넌야. 너는 근본 졀ᄒᆡᆼ 잇셔 젼수일졀 하여싸가 홍안이 낙조되고 ᄇᆡᆨ발이 난수하면 무졍 셰월 양유파를 탄식할졔 불상코 가련한게 너 안이면 뉘가 기랴. 네 아무러 수졀한들 열여 포양 뉘가 하랴. 그는 다 바려두고 네 골 관장의게 ᄆᆡ이미 올으냐 동자놈으게 ᄆᆡ인게 올은야. 네가 말을 좀 하여라.(하, 제54장 전면~후면)

위의 인용문 가운데 ①~④에서 변학도의 기질이 외입을 잘하고 색을 밝히는 부정적 양반 관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①에서 변학도의 기본 성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②에서는 부임 첫마디가 '관노가 삼남의 제일'이라며 의중을 떠 보고, 그 중에서 춘향의 미색부터 묻는다. ③에서 새로 부임하는 관리가 연명하자 말자 바로 기생점고를 명한다. 延命은 조선 시대에, 감사(監司)나 수령이 부임할 때에 관청의 궐패(闕牌) 앞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 임금의 명령을 알리던 의식인데 변학도는 바로 기생점고 하니 이것이 관리로서 바른 민정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 ④역시 변학도가 성적 대상으로 춘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⑥에서 춘향의 수절을 비웃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이도령이 명문 귀족의 사위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회유책을 쓰고 있다.

변학도는 이몽룡과 반대로 춘향의 욕망을 방해하는 부정적 양반 남성이다. 변학도의 욕망의 대상은 춘향의 수청 즉 성적 대상의 성취이다. 변학도의 정절 관념은 여염집 여인의 일부종사는 당시의 사회적 질서유지에 필요한 것이나 기생은 관노이고 양반 남성의 성적 유희물이므로 춘향에게는 일부종사가 필요없다는 이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일부종사로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자 변학도는 미천한 관노에게 정절이 필요 없다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

변학도의 중심동기는 성춘향이 수청을 받아들여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종속적 동기는 춘향의 마음을 이몽룡으로부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수지는 경셩 사ᄃᆡ부의 자졔로셔 명문 귀족 사우가 되야쓰니'로 거짓을 말하고, 기생이 수절하는 것의 무의미함을 비웃으며 '네 골 관장의게 ᄆᆡ이미 올으냐 동자놈으게 ᄆᆡ인게 올은야'로 협박한다. 변학도는 춘향을 얻기 위해 이몽룡처럼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적 중개인은 이몽룡이 되는 것이다. 변학도는 춘향이 이몽룡에게 일부종사하려하므로 이몽룡에게 경쟁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내면적 간접화이다. 앞에서 이몽룡이 변학도에게 경쟁심을 느끼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춘향전 주요 인물의 욕망을 살펴 본 결과 춘향의 욕망 대상은 일부종사이며, 욕망의 중개인은 여염집 여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춘향의 협조자인 이몽룡의 욕망대상은 춘향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욕망의 중개인은 과거급제하여 지방관리가 되는 것이다. 춘향의 적대자인 변학도는 춘향을 단지 관노로 취급하며 성적 소유물로 생각하므로 욕망대상은 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향의 수청이며, 욕망의 중개인은 이몽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망의 주체와 중개인 사이인 춘향과 여염집 여인, 이몽룡과 지방관리와는 경쟁관계가 없는 외면적 간접화이나, 변학도는 중개인인 이몽룡에게 경쟁심을 느끼므로 내면적 간접화가 성립한다.

Ⅲ. 춘향전 독자의 욕망

춘향전류는 판소리와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판소리계 소설이므로 판소리와 간텍스트성을 이루고 있다. 특히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은 판소리가 많이 구연되는 고장에서 출간된 작품이므로 판소리를 향유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판소리가 구연되는 상황에서 창자는 청자의 반응에 따라 내용을 추가 삭제한다. 그러므로 판소리 텍스트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개작되고 청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내용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과장에 따라 다르게 수용된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가 없는 다른 고소설에 비해서 당대의 판소리의 창자나 청자의 목소리가 상호 침투하여 탄생하였을 수 있다. 특히나 경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사구조가 훨씬 긴 완판계열은 이런 판소리 구연 현장에 있었던 민중의 의식들이 더 생생하게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각소설 간행자가 그런 독자의 작품 감상 성향을 의식해서 간행했을 것이다.[11] 그래서 이 장에

11) 김병권.「방각소설 장풍운전 내적 변화의 독자 성향」,『한국문학논총』26, 한국문학회, 2006, 169쪽, 187쪽.
완판본은 구어적이며 열거와 반복이 많고 짜임새가 엉성해서 내용이 가다듬어져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169쪽)
경판 29장본과 완판 36장본에서 살펴 본 서술의 차이는 방각소설 간행자가 서울 지역 독자와 호남 지역 독자의 작품 감상 성향을 의식한 결과일 것으로 추측한다. 호남지역의 독자는 작품에서 제시한 장면을 중심으로 감상하며, 전체 구성의 통일성보다는 서술한 내용에 충실하여 감상하는 성향을 지녔을 것이다. (18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는 판소리계 소설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독자를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추정해 보고자 한다.

판소리는 노래와 연극적 요소가 융합된 장르이다. '판'은 공연하는 한 사람의 창자와 고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판을 즐기는 구경꾼이 있으며 창자의 소리에 반응하는 구경꾼의 추임새가 있다. 판소리는 그 과장에서의 수용자인 구경꾼의 반응을 보면서 내용을 즉시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실시간 텍스트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온라인상의 댓글문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구연되는 상황에서 구술문화 즉 음성언어의 맛과 연극적 동작을 관객에게 직접 전하는 형태이므로 소설보다 훨씬 관객의 수용과 반응이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인터넷과 다른 점은 인터넷이 익명성이라면 판소리의 판은 상호소통하고 개방되어 있으며 대중의 환호와 비난을 창자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소리 <춘향가>는 인터넷 댓글 문화와 비슷한 상호소통의 쌍방형 텍스트이며,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류와 간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작품군 또한 그런 상호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되면서 과장마다 다른 창자의 창과 아니리 및 추임새의 반응에 따라 새롭게 개작되었을 것이며, 필사본은 여러 개작과 이본의 융합체이므로 이본의 이본들의 연속체들이다. 그리고 구연되는 판소리는 일시적, 즉흥적이나 이 판소리를 듣고 글로 문자화하는 소설 작가는 판소리 춘향가를 추가·삭제·변형한 새로운 텍스트로 창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필사본 역시 필사자에 따라 이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완판, 경판, 안성판의 방각본 소설류는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중 소설 유통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대중 소설은 상업성을 목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독자들의 성향을 적극 고려하여 출판된다.[12] 방각본 소설의 출현은 결국 소설을 읽는 것이 취

12) 김현정, 「활자본 <현수문전>을 통해서 본 독자성향」, 『한문학논집 제26집』, 2008, 91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향인 시대, 소설을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문화를 조성시켰다.

고전작품을 해석할 때 일차적으로 작품 자체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13] 춘향전의 텍스트 내적 시대는 '조선조 숙종대왕 즉위 초'이다. 이것이 고전소설의 상투적 표현일 수 있으나 고소설 작가가 어휘를 쓸 때는 의도를 가지고 응결장치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당대 소설의 작가 및 독자들의 지향은 숙종 무렵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숙종 이후로 왕권이 점점 약화되어 붕당정치, 세도정치로 치닫게 된다. 그 뒤를 이은 실학운동으로 근대로 발돋움하면서 평민의식은 성장하였으나, 왕권은 실추되고 밀려오는 외세에 개화와 척사파로 나누어 관리는 민의를 돌보지 않으므로 사회구조적으로 숙종 무렵과 닮아 있다.

춘향전 독자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아래 춘향의 발화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이몽룡과 춘향의 업음 놀이 대목에서 실제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는 부분이 나온다.

> 조흔 말을 하오리다. 드르시요. 부여리를 어분 듯, 녀ᄉᆡᆼ이을 어분 듯, 흉즁ᄃᆡ락 품어쓰니 명만 일국 ᄃᆡ신되야 주셕지신 보국 충신 모도 셰야 린이 **사육신**을 어분 듯, **싱육신**을 어분 듯, 일션ᄉᆡᆼ 월션ᄉᆡᆼ 고운 션ᄉᆡᆼ을 어분 듯, **졔봉**을 어분 듯, **요동빅**을 어분 듯, **졍송강**을 어분듯, **충무공**을 어분 듯, **우암 퇴계 사계 명지**를 어분 듯(상, 제34장 후면)

고경명, 김응하, 정철, 이순신, 송시열, 이황, 김장행, 윤증의 실제 학자의 호를 나열하고 있는데 마지막 명재는 윤증(1629~1714)의 호로서 숙종 때 학자이므로 적어도 독자들은 숙종 이후의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17~18세기는 상업 경제의 발달에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는 사람들을 불러 들였고, 그러한 틈새에서 소설은 하나의 도시문화로 자리잡고 있었다. 17세기말~18세기초 고전소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널리 향유되었다. 그것이 창작이든 번역이든 필사든 간에 소설은 '효', 혹은

13) 유동석, 「고려가요 해독을 위한 이론적 전제」, 『어문교육논집』 17, 2000, 1-15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破寂'의 수단으로 읽힌 것이다.[14]

현존하는 춘향전류에서 가장 오래된 이본인 만화본 춘향가는 영조 30년(1754)에 기록된 것이며, 현존하는 완판본에서 가장 오래된 완판본 별춘향전은 1840년에서 1850년대에 판각 간행된 이본이며, 신재효본 남창 춘향가는 1866년 이후 1884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완판본보다 선행하는 이본이라고 한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고종초년대 즉 1873년 전후에 성립되었다.[15] 당대 사회적 상황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세력과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려는 개화세력간의 중층적 사회상으로서 다중적 목소리가 이원적인 구도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공업의 발달로 평민은 신분제의 변화를 기대하였을 것이고, 양반은 그런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끼며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

14) 김준형, 「18세기 도시의 발달과 소설 향유의 면모」, 『고소설연구 제26집』, 2008, 98쪽.

15) 김동욱, 「증보춘향전연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6, 77쪽, 110, 144-145, 김병권, 「춘향전류 서술변용의 양상과 계보」 179-181쪽에서 재인용. 간행 연대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적어도 신분적 질서가 무너지는 19세기 이후로 보는 것이 공통적이다.
신동흔,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신학규본 별춘향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6집, 판소리학회, 1995, 163쪽. '춘향전의 성립연대는 18세기나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대다수 현전 이본은 19세기 중후반이나 20세기초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류준경, 「춘향전의 눈물 그 의미와 변화의 궤적」, 『국어국문학』 제15호, 국문학회, 2007, 69-70쪽.
류준경은 <완판 84장본> 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부터 춘향은 대비속신한 존재로 그려져 있고, 변학도가 춘향을 부를 때, 호장이 사또에게 기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사회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습법으로서 대비속신이 어느 정도 나름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완판84장본>은 그 간행이 20세기에 들어 이루어졌다. 곧 신분제가 타파된 1894년 이후에 간행된 것이다. 물론 <완판84장본>이 담고 있는 내용이 1894년 이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러므로 <열녀춘향수절가>에는 '남성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숙한 아내인 열녀의 형상과 이해 타산적이고 현실 저항적인 기녀의 형상이 통합되어'[16]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춘향전과 간텍스트성을 이루는 판소리 청자까지 다 아우른다면 그 수용자는 더 커질 것이지만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소설 춘향전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독자를 상정하고자 한다. 소설의 독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양반이거나 평민일 것이다. 당대 소설을 읽는 독자의 신분이 달라도 욕망은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소설을 읽으며 독자(욕망의 주체)의 사회적 계급에 따라 소설을 읽는 동안의 욕망의 대상이나 중개인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춘향전 독자를 평민과 양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평민 독자의 욕망

19세기는 '세도정치'로 대표되는 경색국면이면서도, 갑오농민전쟁의 기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억압적인 가치관에서 점차 벗어나는 시기이다. 방각본 소설의 전성기는 19세기라 하겠다.[17] 근대적 실학 운동 이후에 민중들의 근대의식이 각성되고 난 이후에 널리 불려진 것이 판소리이며 판소리의 인기에 힘입어 방각본 소설이 출판된다.[18] 왕실과

16) 진은진,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정체성 인식과정 연구-이춘풍전과 춘향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호』, 2002, 70-71쪽.

17)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학사연구』 39집, 민족문학사학회, 2009, 29쪽.

18) 임성래, 「방각본의 등장과 전통이야기방식의 변화-<남원고사>와 경판 35장본 <춘향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2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329쪽 -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고소설은 대중화의 길을 걷는다. 그 길의 대표주자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세책본 고소설과 방각본 고소설이다.'
이창헌,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문화의 표준화-」, 『고전문학연구』 제35집, 2009, 141쪽.- '소설을 방각하여 출판하게 됨으로써 …… 근대적 개념의 대중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모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양반 사회에 서양의 문명의 이기가 들어오고 근대적 문물이 유입되어 아무리 시대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최하층의 민중의 삶은 여전히 각박하고 가렴주구의 상황은 변치 않았을 것이다. 그 때 가장 낮은 계층의 백성의 기대는 항상 무참히 밟히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적 소통은 낮은 자들의 천민 집단의 문화로서 판소리 마당에서 벌어지는 창자의 소리나 몰래 읽는 방각본 소설로 소통하였을 것이다.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에서 춘향은 성참판의 딸로서 자신이 기생의 명부에 있지도 않은데 단지 기생의 딸이라는 이유로 고을 수령이 수청을 들라 하니 매를 맞으면서도 저항한다. 기생 딸인 춘향이 탐관오리한테 대항하는 장면은 글을 읽은 독자인 평민에게 동일시를 통해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 곤장까지 맞고 옥에 갇혀 죽을 뻔했는데 사랑하는 연인인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구해주고 정렬부인이 되어 삼남이녀를 낳고 만세를 유전한다. 소설의 끝부분은 평민 독자들의 감정을 정화키시고 '쾌적한 흥분'[19]을 준다. 춘향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 인간인 양반 이도령의 출현이란 판타지로 욕망을 성취한다. 실재하는 욕망과 실현할 수 없는 욕망의 간극을 판타지가 메웠던 것이다. 이것이 판소리계 소설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다.[20]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 제34, 고전문학회, 2008, 229쪽. - '방각본 출판은 문자문화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계층의 문화적 顯現이면서 동시에 근대적 개념의 대중의 독서문화와 내용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제27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224쪽. - '방각본은 익명의 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대중적 수준을 시장의 기준으로 삼아 서사를 조율하였다. 시장의 수요를 이끌어내야 했던 방각본 편집자들은 당시 잠재된 독자를 시정의 상식에서 구체화했고, 그에 따라 작품을 편집했을 것이다.'

19)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1984, 268쪽.

20) 강명관, 「고전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판타지」, 『고전문학연구 제32집』, 2007, 32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조선 후기 양반 이하의 대부분의 평민의 욕망 대상은 부귀영화다. 춘향전류의 작품에 나타난 평민들은 탐관오리의 횡포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평민들의 욕망은 성춘향이나 이몽룡처럼 되는 것이다. 춘향이 여염집 여인을 중개자로 꿈꾸듯, 평민 여인들은 춘향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춘향과 몽룡의 자유로운 결연 부분을 읽으면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춘향이라는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가짜 욕망 즉 춘향처럼 자유롭게 연애하고 사랑받는 여인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목숨을 걸고 일부종사하겠다고 정절을 지켜서 정렬부인까지 되므로 여염집 여인의 꿈을 충족시켜준다. 그러므로 춘향은 평민 여성의 중개인이다. 평민여성과 춘향과는 대립 또는 적대관계가 없으므로 외면적 간접화(낭만적 거짓)이다.

이몽룡은 판소리 춘향가가 불리고 춘향전이 읽히던 그 시대 청중과 독자들이 꿈꾸며 기다린 영웅이다. 조선 후기 민중은 신분의 멍에에서 벗어나고픈 소망, 탐관오리의 학정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크고 작은 민란이 끊이지 않았고, 천주교나 동학처럼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호응을 얻었다. 이몽룡을 영웅적 구원자로 이해하는 관점은 <춘향가>, <춘향전>이라는 작품의 의미를 시대 정신의 반영에서 찾으려는 접근 태도와 맞물려 있다.[21]

암행어사가 되어 변학도를 징계하는 것은 결국 작가의식의 간접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민중을 구원할 의사출현에 대한 백성의 기대를 집약한 것이다. 명문가문의 자제로서 집안간의 혼례가 아닌 자유연애로 연인을 정하고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이몽룡은 결국 민중의 구원을 집약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이다. 현실에서는 변학도 같은 탐관오리의 학정에 시달리면서 누군가 처단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므로 이몽룡이라는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가짜 욕망 즉 이몽룡처럼

21) 이유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남자」,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2』, 서대석 엮음, 휴머니스트, 273-274쪽, 200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몽룡은 평민 남성의 중개인이다. 평민 남성과 이몽룡과는 대립 또는 적대관계가 없으므로 외면적 간접화(낭만적 거짓)이다.

2. 양반 독자의 욕망

조선시대 양반 남성은 일반적으로 양반사대부라 불려진다. 사대부에 대한 정의를 당대 한문소설 <양반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체 양반이란, 이름이 각각이라. 글 읽는 사람은 선비가 되고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가 되며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한다."[22] 조선시대 양반 남성의 이상형은 입신양명한 군자임을 알 수 있다. 춘향전 상편에서 춘향과 이몽룡이 맨 처음 만났을 때 이몽룡이 여염집 규수면 한밤중에 바로 찾아가지 못했을 것인데 기생의 딸이므로 하룻밤 만에 바로 월매의 허락 하에 혼례를 올린다. 이것은 양반 남성들이 학문적으로는 주자학적 질서와 세속적 욕망의 억제를 공론화하면서 금지된 담론인 성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더구나 춘향은 일반적인 기생이 아니라 부계가 양반인 반쯤 양반이고, 일부종사의 의지가 투철하며, 학문적 소양을 겸비하고 미색도 뛰어나니 양반 남성 독자들은 소설의 주인공 이몽룡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기녀와 열녀라는 춘향의 성격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여겨졌으나 남성들이 욕망하는 이질적인 여성의 두 모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23]을 가지므로 춘향은 당시 조선의 양반 남성들의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다. 일부종사를 하는 열녀이면서 자신들의 금지된 성담론을 충족시켜주는 제도적 장치인 기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완전히 천민이 아니라 반쯤 양반인 성참판의 딸이고, 학문

22) 이강엽, 「고소설의 짝패(double) 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제26집』, 2008, 344쪽. 維厥兩班 名謂多端 讀書曰士 從政爲大夫 有德爲君子, 『燕巖集』, 권8, 別集, <放璚閣外傳>

23) 진은진, 「남성 작가의 <춘향전> 수용과 향유 방식」, 『판소리연구』 제22집, 2006, 355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 잘 하고 어머니 월매의 말도 순종적으로 잘 듣는 효녀이니 작가의 소설 내적 장치에 의해 조선 후기 양반 남성들은 춘향과 사랑을 나누는 이몽룡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양반 남성들은 조선시대 지배계급으로서 '여성에게 성적 방종을 금지하면서 자신들은 욕망을 충족시킬 기생제도와 축첩제도의 제도적 설치를 통하여 성적 쾌락'[24]을 추구한다. 양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춘향전 하편에서처럼 미천한 기생의 딸 춘향도 정절을 지키는데, 하물며 여염집 양반 여인들에게도 당연히 정절을 지킬 것을 사회적 무언의 기대로 강요한다. 조선후기 양반 남성들은 춘향이 같은 절세가인이 한 남자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지키려고 죽음으로 대적하는 상황에서 적대자를 물리치고 암행어사로 출두하여 연인을 구해주는 멋진 호걸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반 남성의 중개자는 이몽룡이다. 가문도 좋고 미인도 얻고, 머리도 좋아서 장원급제하는 전형적 인물이므로 양반 남성 독자들은 소설 속 인물인 이몽룡을 닮고 싶었을 것이다. 양반 남성들은 이몽룡처럼 되고 싶고 이몽룡이 역할 모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반 남성의 욕망 대상은 입신양명한 군자이다. 유교적 신분제 사회에서 권력을 얻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하나 과거급제하는 선비의 수는 극히 일부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양반 남성의 욕망 중개인은 이몽룡이다. 양반 남성과 이몽룡과는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외면적 간접화이다.

조선 후기 사대부 부녀층 또는 가부장권으로부터 소외된 사대부층은 가부장제 이념으로 인해 겪는 질곡의 핵심 당사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부장제 이념의 구현을 강하게 요구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대부 부녀층은 그것의 질곡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부장제 이념을 묵수해야하는 역설적 상황 속에 처

24) 강명관, 「고전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판타지」, 『고전문학연구 제32집』, 2007, 322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독자는 이처럼 고조되어 가는 주인공의 비극적 처지에 자신을 투사시켜 도덕적 우월성을 느끼는 한편, 비극적 카타르시스를 맛보기 때문이다.[25]

조선후기 규방의 여인네들은 가문소설이나 내훈, 삼강행실도 등을 통해서 유교적 규범을 묵수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한 규범 속에서 양반부녀자들은 연애나 사랑 등의 욕망은 늘 억압받았고 일부다처제 제도 속에 갇혀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많았을 것이다.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욕망은 '지배담론에서는 은폐되어야 할 것이어서 욕망과 판타지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지배담론의 윤리도덕을 끌어들여 그 욕망과 판타지를 감싸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춘향전의 식욕 성욕 물욕 그리고 신분상승욕은 모두 판타지를 통해 실현되지만 그 외곽에는 춘향의 열행(烈行)이 있다.'[26]

근대 교육의 도입에 따라 양반 부녀자들 중에서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당대 사회가 지향하는 가문을 중시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 이중적 욕망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근대교육으로 개화사상을 가진 양반 부녀자들 중에는 자유연애로 사랑을 쟁취하면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실천자로서 정렬부인까지 되는 춘향처럼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민 여성처럼 전폭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제껏 암글이라 무시받았던 한글소설이 방각본으로 출간되면서 상업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여성들은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여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대중문화의 소비주체로서 거듭나게 되었다.'[27] 이에

25)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고전문학연구 제20집』, 2001. 183쪽.

26) 강명관, 「고전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판타지」, 『고전문학연구 제32집』, 2007, 327쪽.

27)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제26집』, 2008. 326쪽.
최연미, 「조선시대 여성 편저자, 출판협력자, 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따라 소설가는 소설을 읽는 독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설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설을 썼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이본에 따라 독자의 욕망이 다르게 반영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조선후기 소설 유통 양상에 따라 춘향전 독자의 욕망을 평민과 양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판소리계 소설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 것이고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성취 불가능한 세속적 욕망의 존재를 드러내고 성취시켰던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민중적 욕망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타협적 교차점에서 쓰인 것이다.[28] 상층 지배층은 유교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정절로써 여인을 묶으려 하나 소설 독자인 여염집 여인은 춘향을 욕망의 중개인으로 삼아 자유분방한 사랑과 연애담을 읽으며 일탈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하층민인 피지배층은 일부종사하려는데 미천한 기생신분을 들며 수청을 강요하는 탐관오리 변학도가 암행어사한테 봉고 파직되는 장면과 춘향이 정절의 보상으로 정렬부인이 되는 장면을 보며 자신들을 억압하는 양반이 실각되는 장면에서 쾌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각본 소설의 출현은 전문 독자층을 형성하여 소설을 읽는 것이 하나의 취미, 취향인 시대가 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판소리에는 여러 목소리들의 상호침투 현상'[29]이 있듯이, 앞서 살펴본 판소리계 소설

학연구』 제23집, 2002, 142쪽.

양반댁 안방에서 주로 읽히던 사본소설류가 기존의 소설 유통 방식으로는,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된 소설 독자층인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방각본의 성행과 세책가의 등장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는 방각본 출판·인쇄에서 소설이 서당 교과서류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돈을 받고 빌려주는 세책가에서도 부유한 집 부녀자들을 일차적인 고객으로 해서 서울에서 1890년대까지 크게 번창하였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01, 342쪽 재인용.

28) 강명관, 「고전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판타지」, 『고전문학연구 제32집』, 2007, 308쪽.

29)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 그 닮은 예술 세계』, 효형출판, 2000, 10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 춘향전은 상층과 하층의 담론이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춘향전은 상하층 독자의 욕망을 반영한 중층적인 텍스트라 볼 수 있다.

3. 욕망 구조 분석을 통한 의미 해석

춘향전은 춘향의 욕망 실현이 중심 플롯이다. 춘향의 욕망 실현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므로 춘향은 중개인인 여염집 여인을 꿈꾼다. 춘향의 욕망 성취를 방해하는 인물은 변학도이다. 이몽룡은 춘향의 협조자로서 춘향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방관리가 되고 싶어한다. 춘향전의 중심갈등은 성춘향과 변학도와의 대립이다. 춘향은 유교적 덕목인 정절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 덕목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변학도는 기생의 딸인 춘향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신분에 따라 가치를 차별화한다.

춘향과 변학도의 대립은 결국 춘향의 승리로 끝난다. 그러므로 춘향전의 표면적 의미는 일부종사로 정절을 지킨 평민의 승리이다. 춘향이 목숨을 걸고 일부종사하려는 것은 곧 평민의 인간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춘향의 저항은 '지배계층의 권위주의적 가치체계의 허상을 밝히고, 지배계층의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30]

변학도의 욕망은 개인적 욕망의 충족이다. 변학도는 기득권을 가진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개인적인 욕망 성취를 위해 권위를 내세워 정절을 지키려는 평민의 인권을 유린한다. 물론 당대에는 관례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런 것을 민중들이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또한 그런 억압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지배자로서 개인적 욕망을 권위주의로 실현하려는 변학도의 모습은 위선의 인물로서 지배계층의 권위주의를 우스꽝스럽게 드러내고, 그러한 지배계층의 세속화

30) 김병권, 「춘향전의 이념적 탈중심화 담론 - 성춘향과 변학도의 대화분석 -」, 『한국문학논총』 제20집, 1997, 230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와 비천화는 지배계층의 가치체계를 우스운 모습으로 파괴한다.'[31] 그러므로 변학도는 탐관오리의 전형이며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에 이몽룡은 변학도 같은 부정적 관리로부터 민중을 구원해 주는 올바른 관리이다. 왕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인물로서 백성의 욕망 실현의 협조자이며 중개인이다.

춘향전 소설류 뿐 아니라 판소리 춘향가는 '18세기 후반부터 양반사대부나 중간계층, 또는 평민 부호층들의 향유자로 본격 가세하면서 판소리의 범위와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32] 19세기에 이르러 향유층이 일반 서민층에서 양반층으로까지 확대되고 20세기에는 예술 형식이 창극으로까지 변모하기에 이른다.[33] 이것은 판소리의 중요한 향유층으로 영입된 양반층의 세계관까지도 판소리가 함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34] 춘향전이 판소리계 소설이므로 초기에 평민 사이에 판소리로 구연되다가, 이 판소리가 양반사대부까지 향유되었고, 한글 소설이 한문소설이나 현토본으로 간행된 것[35]을 보아도 평민 뿐만 아니라 양반까지도 향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1) 김병권, 「춘향전의 이념적 탈중심화 담론 - 성춘향과 변학도의 대화분석 -」, 『한국문학논총』 제20집, 1997, 230쪽.
32) 정출헌, 「19세기 판소리사의 추이와 신재효」, 『어문논집 37』, 1998, 124쪽.
33) 이정원, 「판소리 문학에서 삼강행실도의 수용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2007, 422쪽.
34) 정병헌, 「적벽가의 형성과 판소리사」, 『판소리연구8』, 66쪽, 1996.
35)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74쪽.
류준경, 「익부전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韓國文化』, 31집, 2003, 77-107쪽.
류준필, 「益夫傳의 서사적 특성과 기록성」, 『韓國文學論叢』, 제 32집, 2002, 123-142쪽.
김지윤, 「익부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117쪽.
강채철, 허호구, 「<春香新說>과 <懸吐漢文春香傳>의 作者와 創作年代」, 『논문집』, 제32집, 1998, 41-54쪽.
정하영, 「<春香傳> 生成과 傳承에 있어서 漢文本의 役割, 어문연구」, 37집, 2009, 187-209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춘향전 인물의 욕망은 곧 당대 독자 즉 평민과 양반의 욕망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평민독자들에게 춘향전 인물은 유교적 실천을 통해 꿈을 이루게 하는 희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한편 양반 사대부들에게는 변학도를 통해 목민(牧民)의 자세를 반성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몽룡을 통해서는 백성을 구하게 한 왕의 뜻, 즉 왕도정치를 향한 전통적 가치에 대한 회복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춘향전의 이면적 의미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전통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바람직한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지향한 가치의 회복을 희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Ⅳ. 결 론

앞에서 지라르의 욕망이론을 중심으로 춘향전 텍스트에 나타난 인물의 욕망과 춘향전 독자의 욕망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춘향전 주요 인물의 욕망을 살펴 본 결과 춘향의 욕망은 일부종사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며, 욕망의 중개인은 여염집 여인이다. 협조자인 이몽룡의 욕망은 춘향과의 약속을 지키는 지켜 사랑을 이루는 것이며, 욕망의 중개인은 지방관리가 되는 것이다. 춘향의 적대자인 변학도의 욕망은 춘향의 수청이며, 욕망의 중개인은 이몽룡이 되는 것이다. 춘향과 여염집 여인, 이몽룡과 지방관리와는 경쟁관계가 없는 외면적 간접화이나, 변학도는 중개인인 이몽룡에게 경쟁심을 느끼므로 내면적 간접화가 성립한다.

춘향전 독자의 욕망을 조선후기 소설 유통 양상에 따라 평민과 양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민의 욕망 대상은 부귀영화이며, 욕망의 중개인은 소설의 주인공인 성춘향이나 이몽룡이 되는 것이다. 양반의 욕망 대상은 입신양명(현모양처)이며, 욕망의 중개인은 이몽룡(성춘향)이다. 양반 독자와 중개인인 성춘향이나 이몽룡, 평민 독자와 소설의 주인공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성춘향·이몽룡과는 경쟁관계가 없는 외면적 간접화이다. 조선후기 방각본 소설의 출현은 전문 독자층을 형성시켜 소설을 읽는 것이 하나의 취미, 취향인 시대가 되었으므로 춘향전은 이러한 상·하층 독자의 욕망을 반영한 중층적인 텍스트라 볼 수 있다.

춘향전은 춘향의 욕망 실현이 중심 플롯을 이룬다. 춘향전 인물의 욕망은 곧 당대 독자들의 욕망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춘향전의 표면적 의미는 일부종사로 정절을 지킨 평민의 승리이다. 춘향이 목숨을 걸고 일부종사하려는 것은 곧 평민의 인간성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또한 춘향전의 이면적 의미는 바람직한 왕도정치를 지향한 가치의 회복을 희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춘향전 텍스트는 <춘향전> 희곡이나 영화로 변용되어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판소리 춘향가와 고전소설 춘향전류에 나타난 춘향의 욕망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 그 보편적인 것마저도 실현될 수 없었던 사회에서 춘향은 자신의 욕망의 중개자를 여염집 여인으로 간접화하고 있다. 결국 소설 작품 속 춘향은 자신의 처절한 저항을 연인을 통해 구원받음으로써 욕망을 실현한다. 춘향전 독자들은 한편으로 낭만적 결연에서 오는 판타지를, 한편으로는 적대자를 물리치는 속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춘향의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지만, 이것이 당대 지배담론의 억압을 정절로 포장한 면이 있다. 그러나 소설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시기에 춘향전은 당대 향유층에게 유행처럼 번져가서 상하층의 담론을 표출함과 동시에 조선후기 이후 대중문화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춘향전 인물의 욕망은 결국 춘향전 독자의 욕망의 반영이며, 현대 대중의 욕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고소설의 방각본 출판은 소설의 유통을 촉진시켰으며 조선후기 판소리처럼 '듣고 보는' 텍스트가 아니라 소설을 '읽는 텍스트'로서 전문독자층을 출현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춘향의 욕망은 현대 대중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욕망과 상통하여 대중문화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춘향전의 욕망과 춘향전 독자의 욕망구조를 분석해 보는 작업은 춘향전을 새로운 관점으로 읽게 하여 현대 대중문화와 고소설이 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춘향전 작품 속 배경은 숙종시대이며 춘향전 독자는 적어도 18세기 그 이후이므로 근대 이행기로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춘향전 인물과 독자의 욕망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설명한 지라르의 욕망이론으로 분석한 것은 다소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서양이론을 그대로 우리문학에 적용하는 것은 항상 모순과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문학을 우리 전통에 내재된 문화적 원리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고소설을 욕망이론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인물이 가진 동기를 텍스트 내적으로 좀 더 명확히 밝히고 그 당대 독자들의 욕망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고소설의 대중성과 현대의 대중문화 출현의 계기가 됨을 밝히는 시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고소설교육을 할 때 작품과 독자의 욕망 및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구조화시켜 가르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강명관, 「고전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판타지」,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308, 322, 327쪽.

강채철, 허호구, 「<春香新說>과 <懸吐漢文春香傳>의 作者와 創作年代」, 『논문집』, 단국대학교, 제32집, 1998, 41-54쪽.

김동욱 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영인 고소설판각본전집』 3,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315-356쪽.

김병권, 「춘향전류 서술변용의 양상과 계보」, 『태야 최동원 선생 화갑기념 국문학논총』, 태야 최동원 선생 화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서울:삼영사, 1983, 177-196쪽.

김병권, 「춘향전의 이념적 탈중심화 담론 - 성춘향과변학도의 대화분석 -」, 『한국문학논총』 제20집, 1997, 230쪽.

김병권,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주역적 원리 연구」, 『한국문학논총』 47, 한국문학회, 2007, 14쪽.

김병권, 「방각소설 장풍운전 내적 변화의 독자 성향」,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6, 187쪽.

김재웅, 「영남지역 필사본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 향유층의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2008, 5-37쪽.

김준형, 「18세기 도시의 발달과 소설 향유의 면모」, 『고소설연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98쪽.

김지윤, 「익부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117쪽.

김치수,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242, 244쪽.

김현정, 「활자본 <현수문전>을 통해서 본 독자성향」, 『한문학논집』, 제26집, 2008, 89-111쪽.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 그 닮은 예술 세계』, 효형출판, 2000, 104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류준경, 「익부전의 서사적 특징과 그 의미」, 『韓國文化』, 3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2003, 77-107쪽.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 제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229쪽.
류준경, 「춘향전의 눈물 그 의미와 변화의 궤적」, 『국어국문학』 제15호, 국문학회, 2007, 69-70쪽.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 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74쪽.
류준필, 「益夫傳의 서사적 특성과 기록성」, 『韓國文學論叢』, 제 32집, 한국문학회, 2002, 123-142쪽.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서울: 학문사, 1981, 77쪽.
민병욱, 「장혁주의 일어체 희곡 <춘향전>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8집, 한국문학회, 2008, 360쪽.
민병욱, 「村山知義 연출 <춘향전>의 공연사회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3집, 한국문학회, 2003, 160쪽.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고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183쪽.
서지영, 「사랑의 보편성과 역사성 춘향전」, 『한국의 고전을 새로 읽는다 2』, 휴머니스트, 2006, 126쪽.
서지영, 「조선후기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사적 의미」,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2001, 285-317쪽.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호, 한국고전문학회, 2001, 247쪽.
신동흔,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신학규본 별춘향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6집, 판소리학회, 1995, 163쪽.
유동석, 「고려가요 해독을 위한 이론적 전제」, 『어문교육논집』 17, 부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학교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0, 1-15쪽.
이강엽, 「고소설의 짝패(double) 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44쪽.
이경하, 「내훈과 소학, 열녀, 여교, 명감의 관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37-271쪽.
이경하, 「삼강행실도의 폭력성 재고 - 열녀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453-483쪽.
이경하,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7-30쪽.
이대규, 『국어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1, 544쪽.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학사연구』 39집, 민족문학사학회, 2009, 29쪽.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1984, 268쪽.
이유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남자」,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2』, 서대석 엮음, 휴머니스트, 2008, 273-274, 283쪽.
이준영, 김난도, 「명품의 소비욕망: 심층면접을 통한 '욕망의 삼각형이론'의 적용」, 『소비자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소비자학회, 2007, 41-58쪽.
이지영, 「한문본 <창선감의록>의 변이와 독자의 소설향유방식」, 『고소설연구』 제14집, 2002, 65-92쪽.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03-331쪽.
이창헌, 「방각소설 출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방각소설의 출판과 언어문화의 표준화」,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41쪽.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6-92쪽.
임성래, 「방각본의 등장과 전통이야기방식의 변화 - <남원고사>와 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판 35장본 <춘향전>을 중심으로」,『동방학지』 제12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329쪽.
장순희,「고전소설교육을 위한 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오행적 원리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33-34쪽.
전상욱,「완판 <춘향전>의 변모 양상과 의미- 서지적 특징을 중심으로」,『판소리연구』 제26집, 판소리학회, 2008, 202쪽.
정명기,「세책본 소설의 유통 양상」,『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84-90쪽.
정병설,「고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비교」,『고소설연구』 제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236쪽.
정하영,「<春香傳> 生成과 傳承에 있어서 漢文本의 役割」,『어문연구』, 37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187-209쪽.
주형예,「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고소설연구』 제27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224쪽.
진은진,「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정체성 인식 과정 연구, -<이춘풍전>과 <춘향전>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 제6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55-79쪽.
진은진,「남성 작가의 <춘향전> 수용과 향유 방식」,『판소리연구』 제22집, 판소리학회, 2006, 329-358쪽.
차충환,「국문필사본 <춘향전>의 계열과 성격」,『판소리연구』 제18집, 2003, 221-279쪽.
최연미,「조선시대 여성 편저자, 출판협력자, 독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서지학연구』 제23집, 2002, 113-147쪽.
한귀은,「텔레비전 드라마의 상호복제와 복제 반동」,『현대문학의 연구』 제27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206쪽.
황은주,「조선후기 고소설 연행과 <임경업전> -담배가게 살인사건을 중심으로-」,『한국어문학연구』 제53집, 2009. 29-258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Structure of Chunhyang's Desire and the Reader's Desire in Chunhyangjeon
- focused on Wanpan Yulneochunhyangsoojulga

Chang, Soon-Hee

Why Chunhyangjeon is popular and changed to diverse genres until nowadays continuously as the classic novel is Chunhyang's desire is valuable to be accepted to modern people. Actually her desire is not the desire of the main character in the novel but reader's desire and the desire could have similarities with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according to R. Girard. Focused on R. Girard's theory of the desire, this study analyzes the desire of modern drama viewers, Chunhyang's desire and the desire structure of Chunhyangjeon readers.

The readers of Chunhyangjeon, mostly noble women's desire was the achievement of love but because of the polygamy in the order of Confucianism at that time, it was very hard to achieve the love. Then, noble women's desire mediator is gisaeng or Chunhyang.

Chunhyang's desire formed the contemporary reader's normal desire. Also, this is reflected in popular drama in these days so it has common points with drama viewers' desire. Therefore, Chunhyangjeon promoted the novel distribution and made professional novel readers appear as reading text not as listening and watching text like Pansori of the late Joseon. In addition, the main character, Chunhyang's desire is general human desire and Chunhyangje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readers′ desire coincide with modern drama viewers′ desire form rendering desire experience indirectly.

Therefore, Chunhyang′s desire is eventually the reflection of readers′ desire and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Chunhyangjeon is the original form of modern desire and present appearance of popular culture. It is the worth of classical novel education through the desire analyzing of Chunhyang and readers.

Key Words : Chunhyang, education of Korean classical novel, desire, reader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심사완료 : 2010년 7월 28일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